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시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 분노 및 피로경험

한상영¹, 이영미^{2*}

¹강원관광대학 간호학과, ²강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ger and Fatigue among Stress factor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Han, San Young¹ and Lee, Young Mee^{2*}

¹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Tourism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 분노, 피로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공통적인 주제를 모색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T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 197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3.82점, 불안은 평균 48.82점, 분노는 평균 1.17점, 피로는 평균 30.96점으로 나타났으며 불안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은 집담회, 수업과 실습,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다. 분노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은 과제물, 수업과 실습, 오리엔테이션, 간호사, 실습환경이며, 피로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은 집담회, 오리엔테이션, 실습환경, 환자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 피로정도, 분노와 피로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불안과 분노 정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ger and fatigue among stress factor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97 nursing students who have practiced at the hospital in T city. Data was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mean score for stress was 3.82. The mean score for anxiety was 48.82. The mean score for anger was 1.17. The mean score for fatigue was 30.96. The factor of stress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anxiety according to conference, theory and practic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factor of stress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anger according to report, theory and practice, orientation, nurse, environment. The factor of stress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fatigue according to conference, orientation, environment, patient relationship. In result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stress, anxiety, anger and fatigu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Stress, Anxiety, Anger, Fatigue

1. 서론

간호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임상실습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창의적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1]. 학생들이 능숙한 임상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은 물론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겸비하기 위하여 임상실습교육이 필수적이다.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반성의 폭을

*교신저자 : 이영미(ymllee@kangwon.ac.kr)

접수일 11년 12월 12일 수정일 (1차 11년 12월 27일, 2차 12년 01월 10일, 3차 12년 01월 30일) 게재확정일 12년 02월 10일

넓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간호 관을 형성하게 되며 미래의 간호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게 된다[2].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임상실습은 강의실에서의 안전하고 아늑한 수업방식에 비해 생소하고 복잡한 환경과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낳고 있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증진, 간호의 정체성 확인, 성취감, 변화되는 자신의 발견 등 발전 지향적 성숙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갖는 반면, 긴장,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 피로, 실망과 회의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도나 만족도는 부정적이며 이론과 실습과의 차이로 인한 혼돈, 비교육적인 실습환경, 대인관계에서의 경험부족, 단순한 간호실무의 반복, 전문지식의 부족 및 자신감 결여 등으로 실습 중 많은 스트레스, 긴장, 두려움, 불안, 피로, 분노를 경험한다[4].

이러한 임상실습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요구, 인내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와 부정적인 실습 경험으로 임상 실습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5].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느끼는 스트레스, 불안, 분노, 피로들을 살펴보면, 하나선 등[6]은 임상실습경험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상황은 간호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흥미를 잃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고, 그 강도가 너무 높거나 빈도가 잦고 기간이 길면 부적응 상태가 되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일으키며, 불만과 실패감, 심한 불안과 긴장, 좌절과 우울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를 잘 할 수 없게 되거나 대응능력이 없는 경우에 좌절, 불만, 실패감, 희망,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여 자신감을 잃고 우울함에 빠지며 심한 경우 행동장애와 정신신체장애를 유발하는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 불건강을 초래하게 된다[7].

박춘자[8]는 간호 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자신의 간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지 않을까하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교수들의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며 신체건강이 양호하지 않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이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어떤 일이나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며 일의 성취를 위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거나 그 양이 정도가 지나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이와 같은 높은 불안은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이행하는데 적지 않은 방해요인이 될 것이며 임상실습지에서

불안을 야기 시키는 상황 하에서는 학습은 손상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간호교육자가 이와 같이 불안을 야기 시키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미리 조정하여 줄 수 있다면 학생들의 불안은 줄어들 것이다[9].

박미영[10]은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환경적 압력에서 기인되는 좌절감이 내성을 넘어설 때 분노는 의식적인 현상이 되며, 자존심의 상실 위험, 심리적 갈등 등이 분노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분노 경험이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한 채 내면화되면 간호학생 자신의 건강과 간호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간호 및 간호전문직 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병동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불안과 함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병동 환경에 적응하며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긴장감과 신체적 피로를 경험한다[11]. 만성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울, 스트레스, 운동이다. 대부분의 경우 피로는 일과적이어서 적절한 휴식에 의해 호전되지만 정도가 심하거나 만성이 되면 휴식을 통해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행 될 수 있다[10]. 또한 임상실습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욕구 만족도는 물론 인내력 감소와 학습능력저하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실습경험을 초래할 수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 실습에 임하고 있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인별 스트레스수준과 불안, 피로 및 분노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학생들이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요인별 스트레스 수준 및 불안, 분노와 피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 분노, 피로 경험과의 관련성을 위한 연구로 T시와 K시의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05월부터 06월에 걸쳐 조사하였다. 2, 3학년 학생들에게 총 200부를 배부하여 훼손과 무성의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

하여 회수한 2학년 75명과 3학년 122명인 19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최현영(1991)[12]의 도구를 기초로 전문대학 간호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몇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실습환경 영역 9문항, 환자영역 7문항, 수업과 실습과의 관계 영역 4문항, 간호사 영역 12문항, 과제물 영역 3문항, 인간관계 영역 7문항, 실습지도와 평가 영역 3문항, 집담회 영역 2문항, 오리엔테이션 영역 3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반응은 ‘매우 강하게 느낀다.’ 5점에서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로 나타났다.

2.3.2 불안 측정도구

Spielberger 등(1972)[13]에 의해 제작되어 김정택과 송동균(1978)[14]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 중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20문항으로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문항은 ‘매우 그렇다’ 4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이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이었다.

2.3.3 피로 측정도구

정영주(2000)[15]의 피로 자각증상을 중심으로 신체적 피로도 10문항, 정신적 피로도 10문항 및 신경. 감각적 피로도 10문항으로 구분되어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항상 그렇다’ 3점까지로 0점에서 90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이었다.

2.3.4 상태분노 측정도구

Spielberger(1988)의 분노경험척도를 전경구(1996)[16]의 번안척도로 측정하였다. 분노정도는 짜증난 상태, 성난 상태 및 격노한 상태등을 측정하는 12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최저 12점에서 최고 48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분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6 이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요인과 불안, 피로, 분노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피로, 분노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2.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T 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인 전문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197명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3학년(61.9%)이 2학년(38.1%)보다 많았으며 실습병동은 내과 35.5%, 외과 30.4%, 산부인과소아과 20.2%, 수술실-중환자응급실 13.9%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53.2%,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6.8%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보통 38.9%, 만족 32.5%, 불만족 28.6%순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분노, 피로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 중 평균 3.82±.42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제물 영역이 4.32±.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집담회 4.17±.82점, 수업과 실습 3.96±.56점, 오리엔테이션 3.93±.73, 실습지도 및 평가 3.91±.66점, 인간관계 3.87±.45점, 간호사 3.78±.50점, 실습환경 3.73±.45점, 환자 3.64±.46점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과제물 영역에서는 “과제의 분량이 너무 많거나 형식에 맞추어야 할 때”가 4.53±.43점이었고, 집담회 영역에서는 “집담회의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클 때”가 4.21±.56점이었 다. 수업과 실습 영역에서는 “수업과 실습 일정이 여유가 없는 경우”가 4.14±.97점이었고 오리엔테이션 영역에서는 “임상실습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 때”가 4.03±.35점이었다. 실습지도 및 평가 영역에서는 “실습평가가 확실한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것 같을 때”가 4.15±.39점이었고 인간관계 영역에서는 “의사가 간호사

를 자기의 보조자로만 여기는 태도를 보일 때”가 4.25±.53점이었다. 간호사 영역에서는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간호사를 보았을 때”가 4.35±.64점, 실습환경 영역에서는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4.34±.34점, 환자 영역에서는 “예민해서 짜증을 내는 환자인 경우”가 4.19±.16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불안, 분노, 피로 정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 정도는 48.82±8.65점, 분노 정도는 13.25±3.24점, 피로 정도는 30.96±12.56점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Table 1] clinical practice stress of subjects

| 영역 | Mean±SD |
|-----------|----------|
| 과제 | 4.32±.65 |
| 집담회 | 4.17±.82 |
| 수업과 실습 | 3.96±.56 |
| 오리엔테이션 | 3.93±.73 |
| 실습지도 및 평가 | 3.91±.66 |
| 인간관계 | 3.87±.45 |
| 간호사 | 3.78±.50 |
| 실습환경 | 3.73±.45 |
| 환자 | 3.64±.46 |
| 평균 | 3.82±.42 |

[표 2] 대상자의 불안, 분노, 피로 정도
[Table 2] Anxiety, anger, fatigue of subjects

| 영역 | Mean±SD |
|----|-------------|
| 불안 | 48.82±8.65 |
| 분노 | 13.25±3.24 |
| 피로 | 30.96±12.56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분노, 피로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분노, 피로 정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학년, 실습병동,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2학년보다 3학년이 높게 나타났다($t=-3.88, p=.001$), 실습병동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산부인과소아과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5.39, p=.001$).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만족한 그룹보다 불만족한 그룹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F=10.92, p=.001$). 그 외의 종교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종교와 임상실습 만족도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불안 정도는 종교가 없는 학생이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높았고($t=-1.934, p=.049$),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불안 정도는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분노, 피로정도
[Table 3] Stress, Anxiety, Anger, Fatigu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s of subjects

| 일반적 특성 | | 스트레스 M±SD | 불안 M±SD | 분노 M±SD | 피로 M±SD |
|---------|------------|--------------|-------------|------------|-------------|
| 학년 | 2학년 | 182.42±23.65 | 48.32±5.17 | 14.13±3.24 | 24.38±13.67 |
| | 3학년 | 196.56±18.60 | 49.13±7.20 | 17.45±3.19 | 24.23±14.39 |
| | t | -3.88 | -0.62 | 6.16 | 1.22 |
| | p | .001*** | .051 | .312 | .314 |
| 실습병동 | 내과 | 183.23±26.67 | 44.13±7.43 | 12.02±3.12 | 43.45±12.21 |
| | 외과 | 186.30±22.87 | 43.42±8.56 | 15.52±4.23 | 38.65±13.43 |
| | 산부인과소아과 | 198.82±18.26 | 47.63±6.43 | 12.04±4.59 | 39.98±12.33 |
| | 수술/중환자/응급실 | 196.56±19.53 | 48.27±12.78 | 24.12±4.23 | 38.75±15.87 |
| | F | 5.39 | 4.30 | 2.20 | 4.66 |
| | p | .001*** | .178 | .142 | .141 |
| 종교 | 유 | 182.32±26.50 | 49.42±8.82 | 12.02±3.35 | 30.23±14.43 |
| | 무 | 184.54±23.63 | 52.53±9.42 | 12.01±3.45 | 34.02±15.21 |
| | t | -1.48 | -1.934 | 0.55 | -3.112 |
| | p | 0.14 | .049* | .542 | .012* |
| 임상실습만족도 | 만족 | 178.45±19.56 | 45.03±5.90 | 12.01±4.11 | 27.21±13.43 |
| | 보통 | 182.35±23.87 | 47.20±7.72 | 15.52±4.25 | 32.45±14.23 |
| | 불만족 | 193.34±18.88 | 41.82±9.06 | 14.05±3.59 | 36.98±14.65 |
| | F | 10.92 | 12.47 | 0.17 | 0.13 |
| | p | .001*** | .001*** | .853 | .013* |

* p<.05, ** p<.01, *** p<.001

[표 4]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요인과 불안, 분노, 피로의 상관관계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 factors, anxiety and fatigue of nursing students

| | 임상실습스트레스 요인 | | | | | | | | | 불안 | 분노 | 피로 |
|----|-------------|--------|--------|--------|------|------|-------|--------|--------|--------|--------|-------|
| | 과제물 | 집담회 | 수업과 실습 | 오리엔테이션 | 평가 | 인간관계 | 간호사 | 실습환경 | 환자 | | | |
| 불안 | .092 | .178* | .174* | .210** | .073 | .074 | .162* | .275** | .037 | .243** | - | |
| 분노 | .213** | .115 | .157 | .205** | .136 | .095 | .164* | .276** | .126 | .246** | .079 | - |
| 피로 | .078 | .185** | .084 | .266** | .141 | .036 | .083 | .245** | .236** | .149* | .358** | .103* |

*p<.05, **p<.01, ***p<.001

보통그룹과 만족한 그룹보다 불만족한 그룹이 높았다 (F=12.47, p=.001). 그 외에 학년과 실습병동에 따른 불안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분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 피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종교와 임상실습 만족도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피로 정도는 종교가 없는 학생이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높았고(t=-3.112, p=.012),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피로 정도는 만족한 그룹과 보통 그룹보다 불만족한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F=0.13, p=.013). 그 외 학년과 실습병동에 따른 피로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4 임상실습 스트레스요인에 따른 불안, 분노, 피로영역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요인과 불안, 분노, 피로 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 (r=.243, p=.001)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 요인 중 집담회 (r=.178, p=.012), 수업과 실습(r=.174, p=.024), 오리엔테이션(r=.210, p=.003), 간호사(r=.162, p=.024), 실습환경 (r=.275, p=.000)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분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246, p=.000)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 요인 중 과제물(r=.213, p=.001), 수업과 실습(r=.157, p=.031), 오리엔테이션(r=.205, p=.001), 간호사(r=.164, p=.023), 실습환경 (r=.276, p=.000)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149, p=.012)를 나타냈으며, 스트레스 요인 중 집담회(r=.185, p=.006), 오리엔테이션(r=.266, p=.000), 실습환경(r=.245, p=.001), 환자(r=.236, p=.000)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불안과 분노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불안과 피로 정도 (r=.358, p=.006), 분노와 피로정도(r=.103, p=.019)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3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17]과 [18]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실습 병동은 산부인과/소아과, 수술/중환자/응급실이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는데, 일반병동 보다는 특수부서의 여러 가지 예측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경험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비교적 높을 것이다. 이는 실습 전의 특수부서의 충분한 오리엔테이션과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의 만족도에서는 불만족한 그룹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과 피로 정도에서는 종교가 없는 그룹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은 그룹에서 불안과 피로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종교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분노감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시 느끼는 스트레스 평균은 3.82(5점척도)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7]과 [10]의 3.87점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스트레스 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제물 영역이 4.3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12]의 연구에서 과제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간호학생들이 실습내용에 대한 과제물이 교수들마다 다른 요구와 지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3]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대부분의 임상실습 평가가 과제물을 통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적잖은 스트레스를 경험 할 것이다. 또한 [3]의 보고와 같이 학생들의 실제 실습 현장에서의 임상실습 지도자와 담당교수와의 서로 다른 지도와 과제물 요

구에 대하여 많은 혼동을 초래 할 것이다. 따라서 실습시 실습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적절한 과제를 준비토록 도움을 준다면 과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이다. 다음으로 집담회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17]의 연구내용과 같이 집담회 준비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과제물과 함께 이중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를 통해 대상자들은 과제물과 더불어 보고서 등, 서면으로 제출 하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문항별 스트레스가 높은 요인은 수업과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지도 및 평가, 인간관계, 간호사, 실습환경, 환자 순으로 나타났고 [1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12]의 연구에서는 과제물, 간호사, 인간관계, 수업과 실습과의 관계 순으로 보고되었고 [6]의 연구에서도 과제물, 간호사, 수업과 실습과의 관계, 인간관계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시 높은 스트레스 영역인 과제물, 집담회, 인간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불안 평균은 48.82점이었다. 이는 [17]의 연구와 [8]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간호학생들이 학교라는 정적인 익숙한 환경을 떠나 병원의 동적인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피로 평균은 30.96점으로 [19]의 연구에서 연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같은 척도로 조사한 피로점수 17.2점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직근로자에 비해 오랜 실습시간 동안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실습 환경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3]도 임상실습시 간호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으로 하루 종일 서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므로 다리가 제일 많이 아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환경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로 또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종교가 없는 그룹에서 피로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연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김석환 등[19] 결과에서 종교와 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분노 평균은 13.2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의 분노정도가 문항들의 평균점수 1.54점(4점척도)으로 나온 것과 본 논문의 문항들의 합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논문의 분노영역이 비교적 낮은 평균을 나타낸 이유로는 친절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남에게 쉽게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간호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임상실습시 간호학생들의 분노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 과제물 준비에 부족한 시간, 비교육적 실습환경 등으로 인한 실망감, 소외감, 두려움, 당혹감, 갈등 등으로 간호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갖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 피로 및 분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불안, 분노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 피로 및 분노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피로 및 분노를 감소시켜 효율적인 임상실습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5. 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시 스트레스요인에 따른 불안, 분노, 피로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공통적인 주제를 모색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T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학생 197명으로 연구기간은 2011년 05월부터 06월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과제물, 집담회, 수업과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지도 및 평가, 인간관계, 간호사, 실습환경, 환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학년, 실습병동,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다.

셋째,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종교와 임상실습 만족도로 나타났다.

넷째, 피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종교와 임상실습 만족도로 나타났다.

다섯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분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피로, 불안과 피로, 분노와 피로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불안과 분노정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시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이 불안, 분노,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생들로 하여금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 피로 등의 불편감을 효율적 적응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처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 피로경험이 환자의 돌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간호교육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Reference

- [1] Kang. J. Y., Kim. K. S., "Effect of Aromatherapy on Anxiety and Fatigue in Students Nurses Experiencing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9(2), pp. 226-236, 2002.
- [2] Park. K. S., Hwang. Y. Y., & Choi. E. H., " The Study of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t the Intensive Care Uni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5(3), pp. 373-382, 2003.
- [3] Ko. S. H., Kim. K. M.,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Nurse*, 33(2), pp. 59-71, 1994.
- [4] Park. M. Y., Kim. S. L.,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pp. 23-35, 2000.
- [5] Park. B. S., "Stres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linical Practices by Sex Role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8.
- [6] Ha. N. S., Han. K. S., & Choi. J.,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2), pp. 358-368, 1998.
- [7] Won. J. S., Kim. J. H., "Influencing Factors o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in Elderl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2(2), pp. 148-154, 2000.
- [8] Park. C. J., "Nursing Students Anxiety Level and Perceptions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3(1), pp. 34-45, 1997.
- [9] Kleehammer, K., Hart, A. L. & Keck, J. F.,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8), pp. 33-36, 1990.
- [10] Park. M. Y., "Nursing Student's Strss and Anger Experience in the Clinical Sett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1), pp. 7-21, 2001.
- [11] Won. J. S., Kim. K. S., & Kim. K. H., Kim. W. O., "The Effect of Foot Massage on Stress in Student Nurses in Clinical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7(2), pp. 192-207, 2000.
- [12] Choi. H. Y.,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y and Stress Factors of Nursing Students" *The Medical Journal of Chosum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1991.
- [13] Spielberger, C. D., "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 Research. New York : *A cademic press*, 1972.
- [14] Kim. J. T., Song. D. K.,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TAI)" *The New medical journal*, 21(11), pp. 69-75, 1978.
- [15] Jung. Y. J., "The Effect of Rapidly Rotating Shiftwork on the Fatigue Level, Urinary 17-KS, Na⁺ and Cl⁻ Excretion" *The Medical Journal of Chosum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2000.
- [16] Jeon. K. K., "Development of the Korean Stat-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2)"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n Psychology*. 3(1). pp. 53-69, 1996.
- [17] Park. I. S., Kim. C. S., & Kim. R., Kim. Y. J., Kim Y. J., "Stress, Anxiety and Fatigu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pp. 151-160, 2005.
- [18] Yang. J. J., "Th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Perspectiv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2), pp. 276-286, 2000.
- [19] Kim. S. H., Yun. G. S., "A study on the Stress and Fatigue of Research Workers"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0(1), pp. 105-115, 1998.

한 상 영(Sang-Young Han)

[정회원]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강원관광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 아동간호

이 영 미(Young-Mee Lee)

[종신회원]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재해간호, 응급간호